

김승원·용혜인 낙마 충격… 與 ‘개헌·민생’ 전열 재정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단장 ‘개헌추진단’ 출범
“5·18 운동, 부마항쟁 헌법에 수록
대통령 중임제 국민공감 논의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충격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민생을 띄우며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1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한 대로 논의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TV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5·18 (정신)을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 또는 개헌이 우리 국경과제 1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태년의 원을 단장으로 하는 개헌추진단을 전날(20일) 출범시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개헌 관련)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5·18과 부마항쟁 등을 넣는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정치적 공감대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가령 이진숙 씨 같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이야기글 하는 분들은 이것은 헌법과 국민 공감대의 틀 밖에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것은 국민들의 이제 공감하고 합의하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고 일각에서 자꾸 없는 것을만 들어내서 내각제 개헌 등은 전혀 적어도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는

민주화, 산업화를 지나서 품격 있는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그것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권을 높이는 것, 그 품격 사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그것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타임라인을 두고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총선에서부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추진 외에 민주당은 ‘현장’ 민생 행보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새벽 서울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문한 일화를 설명하며 “이제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메가TF 12개 (구성이) 끝났고 의원들이 각자 뛰는 미니 TF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뛰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용·김 낙마에 책임 강훈식 사의표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는 등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기흥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실장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수차례 말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중립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 사실을 전한 만큼, 이 대통령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실장의 거취 결단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때문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자, 그러나 용 전 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 의사를, 김 전 후보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면서 강 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당일 강 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3실장 체제는 당분간 비상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면서, 이번주는 3실장이 모두 부재 상황이 됐다.

/서예진 기자

얼굴 맞댄 ‘추·석’… “지방세율 인상” “균형점 찾을 것”

(추미애·김민석)

최고위원회서 ‘신경전’

추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
김, ‘경기도 설명의무 부족’ 지적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비판’·‘고액 정치 컨설팅’·‘DMZ 영화제 예산 삭감’ 등 여러 이슈를 두고 충돌을 벌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얼굴을 맞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광역지방정부 배분 등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논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최근 자주 충돌한 바 있는 두 사람의 대면에 이목을 집중했다. 추 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임명하자 “한동훈과 한 배를 탄 사람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높다고 저는 느꼈다”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지사가 지난 지선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출했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추 지사 측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경기도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선 7·8기 전 경기도지사도 해당 업체의 전

신 업체와 선거컨설팅 계약을 했다”며 “경기도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르는 것은 자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과 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면했다.

추미애 지사는 최고위 회의에서 올해 경기도 예산안 중 상당수가 1~9월 예산만 편성돼 있어서 10~12월 예산이 비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인상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 ▲담배세 지방교육세를 소분방으로 전환 등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최고위 후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에 돈을 쓰고 나면 국가 매칭이 됐든, 도 자체 사업이 됐든, 나머지 여력이 없다”며 “(하지만) 세입은 과거 설계된 그대로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고 있다. 취득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대표는 두 사람이 최근 논쟁을 벌였던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도와 당의 설명의무가 잘 정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영화제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을 축소하자 영화제 측은 이제 맞춰 당초 공지했던 상급과 프로그램도 줄이거냐 없앴다. 김 대표는 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며 ‘경기도의 설명 의무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美 출국길

5박7일 일정 美·멕시코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UN)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21일부터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전했다.

우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

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엔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할과 글로벌 기여 의지를 국제 무대에 알릴 방침이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 정상으로서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靑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대변인으로 김성완 시사평론가(사진)를 임명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대변인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지난 4월 전은수 당시 대변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뒤 공석이였다. 청와대 대변인단은 5개월간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안귀령 부대변인 2인 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김 대변인 임명으로 ‘3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서예진 기자

